국힘 혁신위 '중진·친윤 불출마, 험지 출마' 공식 의결

지도부 '희생' 요구안…"12월 4일까지 답해달라" 최후통첩
인요한 위원장 총선 불출마 선언…공관위원장 추천 요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지도부와 중진, 친윤석열계 의원이 총선에서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

혁신위는 지난 30일 회의에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혁신 안건으로 의결한 '희생'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것이다.

오신환 혁신위원은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으로 보답할 때이다.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달 4일 또는 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을 예상한다고 오 혁신위원은 밝혔다.

혁신위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요한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권고를 받은 주류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주말 울산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역구 재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지자 4200명 앞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인 위원장은 "그동안 당의 책임 있는 분들에게 변화를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혁신의 특징은 제로섬이다. 100점 아니면 '빵점'(0점)이다. 70, 80점짜리는 없다.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라면서 "아주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직 추천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나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에 제안한다. 이번 총선에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다"며 "혁신위의 전권을 준다고 공언한 말씀이 허언이 아니면 나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혁신위 제안을 공관위로 넘기겠다는 일반적 답변으로 일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혁신위에서 제안한 국민의 뜻이 공관위 통해 온전히 관철돼 국민이 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와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못 박았다.

인 위원장의 이같은 추가 요구는 혁신위 의결 사항은 아니라고 오신환 혁신위원은 설명했다. 오 혁신위원은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인 위원장이 양해를 구했다"면서 "구체적으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공관위원장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혁신위 조기 해산 전망에 대해 묻자 "인 위원장이 월요일(4일)까지라고 시한을 말했으니까, 당의 답변을 듣고 난 이후에 혁신위 내부에서 논의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관섭 신임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한오섭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 발표 브리핑에 배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신설 정책실장에 이관섭…수석 5명 전원 교체

2실장 체제서 3실장 체제로…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
시민사회 황상무·경제 박춘섭·사회수석 장상윤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또 정무수석에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홍보수석 이도운 대변인, 시민사회수석 황상무 전 KBS 앵커, 경제수석 박춘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회수석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대통령실 인사·조직 개편 결과를 발표했다.

현행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의 2실장 체제에서 3실장 체제로 전환하고, 수석 5명을 전원 교체함으로써 현 정부 출범 1년 6개월여만에 '2기 용산 참모진'이 출범했다. 이 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수석실 기능은 정책실로 이관된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정책실장은 그동안 탁월한 정책기획력과 조율 능력을 발휘해 굵직한 현안들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식견이 높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추진력 있게 이끌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한 정무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국정상황실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며 "국정 현안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바탕으로 대국회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면서 여야 협치를 이끄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황 시민사회수석에 대해 "언론인으로서 축적해 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할 것"이라며 "국정 전반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 운용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이 홍보수석에 대해 "다년간 기자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뛰어난 소통 능력을 갖고 있다"며 "국민에게 국정 현안과 정책을 소상히 설명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박 경제수석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재정·예산 전문가일 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원만히 조율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도모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 사회수석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사회조정실장 등을 거치면서 사회복지 분야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획조정 역량이 탁월해 교육·복지·연금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임명한 신임 실장과 수석들의 임기는 다음달 4일 시작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힘 '울산 선거개입' 文 전 대통령 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지난 30일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몸통'을 찾아야 한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선거 당시 울산시장으로 피해 당사자였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8개 부서가 총동원되고 경찰이 전면에 나서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거대한 선거 공작이 겨우 청와대 일개 비서관에 의해 결행되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또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문 전 대통령은 '절친'인 송철호의 당선이 소원이라고 했다"며 "사건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이나 언급됐고, 대통령비서실 8개 조직이 송철호 당선에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단히 늦었지만 선거 공작의 실체, 법치 문란 행위에 대한 진상을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가람 최고위원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8개 조직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없다"며 "이제라도 사건의 '몸통'을 찾아 선거와 민주주의를 농락한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심 심판은 문재인 정권 조직적 범죄 빙산의 일각"이라며 "선거 테러 범죄의 최정점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하명 수사라고 하면 그 '하명'의 몸통은 누구인가. 청와대 8개 부서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 그들을 움직인 빅브라더는 누구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답해야 한다"고 썼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지난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운하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을 질타했다가 황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던 것을 언급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헌재소장 자리는 유남석 전 소장이 지난 10일 퇴임한 이후 21일 만에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무기명 표결로 이뤄진 임명동의안은 총투표수 291표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 소집을 추진한 데 반발해 본회의장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 농성을 벌였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을 위해 결국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앞서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관인 이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으며, 지난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 신임 헌재소장은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임기를 시작했으며, 헌법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17일까지였다. /연합뉴스